

전동킥보드 등 불법주차 신고 채팅방 운영한다

순천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기반 실시간 불법주차 신고 창구 운영 시작해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동킥보드·공유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9월부터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에서 '순천시 전동킥보드'를 검색하거나 시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일시 △위치 △기기 QR코드 △현장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내용은 담당 부서가 즉시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점자블록 ▲횡단

보도 ▲보도 중앙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치에 불법 주차된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다.

오픈채팅방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는 이번 오픈채팅방 운영을 통해 불법주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6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이론 및 주행 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오픈채팅방을 활

용함으로써 기존 국민신문고 등의 방식보다 빠른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공유자전거의 건전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와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위원장 김준선)가 「2025 세계유산축전 선암사, 순천갯벌」의 출발과 성공을 다짐하는 Kick-off 워크숍을 9일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진행한 다. 워크숍에는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덕현 기자

‘지역 상권에 새바람’ 골목형상점가 2개소 지정

부안 곰소 골목형상점가, 부안석성 골목형상점가 지정

부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진서면 곰소리 일원과 부안읍 동중리 일원을 각각 '곰소 골목형상점가(회장 박진성)', '부안석성 골목형상점가(회장 박영숙)'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곰소 골목형상점가'는 부안군에서 세 번째로 지정한 골목형상점가로, 곰소항을 따라 곰소항저갈단지부터 곰소다용도부지 앞까지 이어지는 상권으로, 젓갈을 중심으로 건어물, 수산물 등 다양한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네 번째로 지정된 '부안석성 골목형상점가'는 부안읍사무소 맞은편에서부터 시작하여 부안농어촌버스휴게소 맞은편까지 이어지는 상권으로, 슈퍼, 문구

점, 음식점 등 다양한 점포가 밀집하고 있는 구도심으로 부안버스종합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어 부안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상권이다.

부안군은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집중 육성하여 오는 9월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완료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어 지원하는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로,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있는 구역의 상인회에서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특히 최근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하여 상권을 살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화영 부군수는 "격포어촌계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격포항 수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22개소 등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화재피해로 어려움을 겪었던 격포항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신규 상권 발굴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이영임 기자

필드로봇 피지컬 AI 산업 대전환 전략 구상 포럼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국회에서 필드로봇 중심 피지컬 AI 산업 대전환 전략 구상 포럼을 개최하며 국가 차원의 전략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제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필드로봇 중심 피지컬 AI 산업 대전환 전략구상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최자인 이원택 국회의원과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서백련 김제시의회의 의장 및 의원이 다수 참여하고, 중앙부처 관계자,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1부 주제 및 분야별 발표와 2부 관계기관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성균관대 우흥욱 교수의 “Physical AI시대 : Agentic AI에서 산업 혁신으로!”발표를 시작으로, 현대건설 박영준 상무(미래 모빌리티가 변화시키는 미래도시), 대동 에이아이팀 최준기 대표(AI-Driven Innovation in Future Agriculture), 고소작업 건설로봇 사업단장 안창범 서울대 교수(피지컬 AI시대의 건설로봇 기술 개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성균관대 이지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전북도, 김제시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국가 차원의 전략 방향과 정책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피지컬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누가 먼저 현장에 적용하고, 누가 먼저 표준을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특히 필드로봇 분야에 대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주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지금까지 제조로봇 중심으로 추진해온 정책 흐름을 넘어, 필드로봇 중심 피지컬 AI 산업의 필요성과 국가 전략 방향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첫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성주 시장은 “정부, 국회,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함께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산업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서주 기자

최훈식 군수, 청년 한우농가와 간담회 개최



최훈식 장수군수가 군청 군수실에서 지역 청년 한우농가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수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 한우농가들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축산위생과장 등 군 관계자 6명과 지역 한우 농가의 청년 농업인 5명이 참석했으며 장수한우의 우수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청년

한우농가들은 장수한우의 우수 혈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우량 암소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원의 보호와 번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우량 암소 사육농가에 대한 번식 장려금 지원 △관내에서 생산된 혈통이 우수한 한우 송아지 매입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 △번식농가 대상 각종 보조사업 인센티브 확대 등 지속 가능한 한우 암소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장수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

견을 축산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간담회에서 “한우 산업은 장수 축산업의 근간이며 특히 청년 축산인은 미래를 이룰 핵심 동력이다”며“청년농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한우농가들의 건의에 깊이 공감하며 번식 개량과 우수 혈통 보호를 통해 장수한우의 명성을 되찾고 제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수군은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광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정우 부군수 주재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축제 프로그램별 담당부서가 모두 참여해 준비 사항을 종합 점검하는 자리로, 신규 프로그램 도입과 축제 콘셉트에 맞는 길러 콘텐츠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 축제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되짚으며 개선책을 논의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더했다.

김서주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수출상담회 개최해

전북특별자치도 상담 125건·145만 달러, 현장 계약 5건·70만5천 달러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기업과 함께 글로벌 판로 확대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열린 '2025 수출비즈니스 데이'에서 총 125건의 상담(145만 달러)과 5건의 현장 계약(70만5천 달러)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주관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본관 다목적 강당에서 3일간 진행됐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북도가 협력해 마련한 첫 공동 상담회로, 글로벌 바이어 초청 규모를 확대하고 도내 농수산식품기업의 참여를 늘려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크게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에는 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주요 시장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했다. 1~2일 차에는 전국 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담회가 열렸고, 마지막 날인 3일 차에는 전북 지역 농수산식품기업 32개사와 글로벌 바이어 21개사가 1대1 집중 상담을 이어갔다.

특히 도내 5개 기업은 현장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감자깻을 생산하는 A업체는 싱가포르 B사와 50만 달러 규모 계약을 맺고 공장 투어까지 이어가며 신뢰를 다졌다.

파우치 음료를 생산하는 D업체는 인도 S사와 10만 달러 규모 협약을 체결해 향후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가공식품, 음료, 간편식 등을 선보인 3개 기업이 바이어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에서만 총 70만5천 달러 규모 계약이 성사됐다.

이번 상담회는 전북 식품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신뢰를 쌓고 협력 가능성을 넓히는 자리로, 전북 식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기자

석유화학 범용소재 고부가가치 전환 속도!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선정 166억 확보



전라남도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기술개발을 위해 공모한 '폴리올레핀 활용 다공성 전극소재 제조 및 친환경 공정기술개발'에 선정돼 166억 원을 확보,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산업 전환 교두보를 마련했다.

폴리올레핀 활용 다공성 전극소재 제조 및 친환경 공정기술개발 사업은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속에서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은 폴리올레핀(PE·PP 등)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다공성 소재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제조·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166억 원(국비 111억·민자 55억)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이다. 여수국가산단 DL케미칼이 주관해 진행한다.

폴리올레핀은 중국과 중동 지역 대규모 설비 증설로 수출량이 급감하면서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큰 타격을 입힌 대표적 범용소재다. 이에 따라 국내 폴리올레핀의 수요처 다변화와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번 과제는 폴리올레핀을 열분해와

구조제어 기술로 다공성과 전도성을 부여해 이차전지 음극소재 등에 활용되는 다공성 탄소소재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공성 탄소소재의 경우 원료부터 최종 물질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가 완료되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함께

이차전지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홍 국장은 “여수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공모사업을 지속 유지해 기업 새 활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덕현 기자

주요관광지 통합관람권 ‘선택할인제도’ 시행해

신안군은 지난 9월 2일부터 주요 관광지 통합관람권에 ‘선택 할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본격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관람객들에게 맞춤형 선택권을 제공하고 더욱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구축하여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기존 통합관람권은 5개 대상 시설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획일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선택할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람객들은 자신이 방문을 원하는 관광지를 직접 선택하여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할인 적용 대상 시설은 신안군의 대표 관광지인 무지엄파크, 1004섬 분재정원, 퍼플섬, 화석박물관, 서각박물관 등

총 5개소이다. 이들 시설 중 3개소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3개소를 선택 시 약 50%의 할인율이, 4개소 선택 시에는 55%, 그리고 5개소 모두를 선택할 경우에는 최대 57%의 할인이 적용되어 관람객들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이 제도는 일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청소년, 군인, 어린이, 단체 관람객은 필요에 따라 개별 매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선택할인제도’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 편의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신안군의 특색 있는 섬정 원문화 대중화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관람객들이 원하는 정원과 관광지를 더욱 합리적인 비용으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문화·관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新安경찰서, 신안소방서,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덕현 기자